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8일 (목) 14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1) ... 2면
-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0) 2면

(14시 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규정상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수현 연합사무처장님, 그리고 이재만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연합장이 제출한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핵심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1)

2.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100)

(14시 08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또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수현 연합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안녕하십니까? 연합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 중에도 충청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연합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충청광역연합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5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준공 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5개 사업 예산액 8억 원 중 5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세수 여건 악화 등으로 시도의 부담금 규모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충청권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관광 자원 공유, 광역 생활 교통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56억 2510만 원으로 '25년 당초 예산보다 0.45% 2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56억 원, 기타수입 2500만 원, 이자수입 10만 원으로 총 56억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 총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259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6억 5955만 원보다 2억 664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의정 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7억 677만 원, 의정 활동 홍보 5000만 원, 의사 운영 및 기록 관리 1억 208만 원, 상임위원회 운영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쪽부터 45쪽, 초광역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1억 7246만 원으로 '25년 32억 4879만 원보다 10억 7633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국제 협력 추진 역량 강화 9100만 원,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관 설치 6500만 원, 청사 및 차량 관리 9억 4463만 원, 언론 홍보 및 콘텐츠 발굴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쪽부터 53쪽, 초광역산업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19억 4083만 원으로 '25년 예산 13억 6083만 원보다 5억 8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 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 6700만 원, 전략 산업 연계 협력 사업 기획 지원 6억 8200만 원, 충청미래경제포럼 운영 5200만 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해외 박람회 6억 원, 충청권 생활문화축제 1억 9700만 원, 충청권 광역관광 지원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쪽부터 61쪽,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5억 8583만 원으로 '25년 예산 3억 3083만 원보다 2억 55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충청권 UAM 기업 박람회 3000만 원, 충청권 교통 통합 정책 추진 2억 원, 충청권 농식품 지원 및 육성 3400만 원, 충청권 환경 기반 조성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저희 충청광역연합이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 발맞춰 충청권의 협력과 균형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제1차 본회의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이수현 연합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희** 전문위원 이상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6억 25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변동 예산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이월액 5억 20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 이월액 5억 2000만 원으로 이월 사유 대부분이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 및 용역 기간 부족으로 확인되며, 이는 사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용역 기간 및 일정 관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요 정책 결정과 직결되는 연구용역들이 다수 이월됨에 따라 당초 정책 추진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추경 편성의 실효성 부족과 다수 연구용역 사업의 이월 문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56억 25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1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충청권 초광역 협력 취지와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 구조가 전액 자치단체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자율성과 탄력성이 제한적이며, 신규 사업과 일부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합니다.

4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광역 협력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부합하나 신규 사업 비중 확대, 분담금 의존 세입 구조와 성과 관리 미흡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신규 사업 성과 관리 강화와 증액 사업 집행 실효성 점검 및 감액 사업 정책 공백 최소화, 성인지 관점의 정책 설계 보완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이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를 한 사항으로 능

룰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해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합장님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 단기간에 작은 예산으로 사업하시느라고 늘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저희들 주신 자료 중에서 성인지에산서가 있더라고요. 이 성인지에산서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 그리고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 안에 보니까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29페이지, 한 예로 보실게요, 성인지에산서 29페이지.

대부분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아니면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든지 도지사의 공약 사업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인지에산서에 있는 것들이 다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에요.

이거를 저희 충청광역연합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성인지에산서에다가 이렇게 양성평등 추진 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나 지자체 별도 추진 사업으로 분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성인지에산제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만 지자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양성평등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남성과 여성의 참여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돌봄이라든지 양성평등 관련한 것들 중에서 양성미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자체적으로 부담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만 담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딱히 구분 짓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간접적으로도 성평등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진행하는 거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잘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꾸로 여쭙는 겁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각 부서별로 양성평등법이나 아니면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재정법과 회계법에 의해서 분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성평등과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사업은 담지 않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아니요, 그 부분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진행 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자체 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예,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청년 농어업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해 보다 보니까 성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라든지 농어업인들에 대한 문화 확산 측면을 봤을 때 이것들을 양성평등으로 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해 보신 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우리 충청광역연합에서는 청년 농어업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거를 성인지예산에 담아서 연합 안에서 자체적 브랜드 사업화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이 부분은 저희가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컨설팅을 통해서— 선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니 농어업인의 구성 비율이 대부분 남성이 좀 많이, 큰 비중이다 보니까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비중을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렇게 담아서 성인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현미 위원** 그리고 대상 사업 유형이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자체보다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꼭 담아야 되는 사업…… 그러니까 최근에 지자체에서는 자체를 빼는 추이고 양성이나

성별영향평가 쪽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자치단체 별도 추진 사업보다는 —지금 이런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성별이나 양성평등으로 들어가는 사업 유형이 더 낮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37페이지 보실게요.

저희들 교육 운영에 있어서 이거를 담았어요, 성인지예산에. 그래서 교육 운영을 왜 이렇게 담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도 직원의 비율 때문에 교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성별에 있어서 맞춰 가는 부분, 아니면 육아 돌봄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건지, 이 의도를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서는 —36페이지에서— 기본적인 거, 조직문화 조성, 교육 기회 제공, 이렇게 하기에는 교육 운영이 단순한 성인지예산을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기준을 삼아버리면 모든 교육은 모두 다 성인지예산이 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이재만** 예, 맞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깊이 고민을 못 한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넣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남녀의 균등한 교육 기회 이런 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쪽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좀 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이라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뒀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 위원** 남녀를 떠나서 최근의 돌봄이나 육아나 일 균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청권 4개 시도가 하는 사업들에는 이런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6페이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이나 기금이 —쉽게 볼 수 있는 기금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자체가 바라보는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냥 형식적인 예산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성인지예산 속에 지자체 사업을 가지고 가려면 총청광역연합이 총청광역연합의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일 균형에 맞춰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초점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제가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이 저희 연합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놓쳤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한 시점에 저희가 전문 기관에 위탁을 위해서 진행했는데, 저희가 마인드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태 위원** 충주에서 온 조성태입니다.

자료 쪽 보다 보니까, 저희 자료로 사업설명서 보시면 165페이지고요, 금강수계 물환경 관리 모니터링 연구용역, 신규 사업입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가능하실까요?

이수현 처장님 충북에서 오셔서 고생 많이 —짧은 기간에 많이— 하셨다고 격려를 드리는데, 저희 충청북도 북부 쪽은 한강수계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금강수계라고 하면 천안서부터 본류 흐르는 이쪽이 혜택 범위는 가장 많기는 할 텐데, 금강수계로 한정이 되는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강수계나 나머지, 원주환경청도 관련되어 있고 저희가 충청권 전체로 보면 환경청이 여러 군데인데 금강만 꼭 해야 될 이유가, 4개 시도가 모인 이유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금강수계여야 되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저희 충청권은 말씀하신 대로 북부에는 한강수계가 있기는 한데, 충청 4개 시도가 공유하는 지역이 금강수계이다 보니까 기존에 세종과 충남은 관련된 사업을 같이 공동 사업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금강수계에 대한 영역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한강수계는 조금 아쉽지만, 넓게 보면 충남도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충북은 대부분이 한강이다 보니까 어느 한 시도만 해당이 되는 거는 도 자체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서 금강수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조성태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금강수계를 하셨다는 거에 대한 거는 할 수 없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최선이였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보면 차라리 금강수계보다는 —올해 지방선거 끝나고 하겠지만— 공공기관 2차 쪽으로 또 옮겨갈 부분도,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해당할 텐데, 기후환경에너지부도 가까이 있잖아요. 본 건물에 같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광역연합의 회나 지방정부에 환경청에 대한 이전, 그리고 지역에 가면 환경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하다 보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저희가 점용허가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광역연합 정도 됐으면 차라리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얘기해서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물론 환경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지요?

금강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환경부에서도 모니터링 사업 이거는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좀 더 파격적으로 충청연합에서 금강청이나 원주환경청, 한강유역청의 일부 권한에 대해서 나눠 쓰는 게 어떨까, 이 정도 권한이

나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적지 않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는…… 1억 7000인가요? 그렇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1억 7000입니다.

○**조성태 위원** 1억 7000 갖고 한정된 범위에서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와서 하라 마라 더 말씀드릴 거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넘어와서 제가 잘 못 보던 내용이라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생산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처장님?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부분이라 저희도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합 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업무를 각 지자체와 협의할 때 환경에 대한 부분도 —업무를 받아온 상황에서 용역이 우선은 금강으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금강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확대해석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논리를 가지고,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후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영역·업무에 대해서 저희 연합에 이관을 해 달라’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아마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선보완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했다고 보는데, 기후환경에너지부 최고의 이슈인 분산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부분이 산자부에서 떼워서 나온 기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랑 저희가 모니터링보다는 차라리…… 환경청에 일부 지역 하천이나 기본적으로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 있잖아요. 환경청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수자원을 이용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각 지역에서 따로 합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광역끼리도 그런 권한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오시면 항상 그런 게 걱정이더라고요. 환경청 협의하는 게 가장 어렵다. 하천변, 요즘 파크골프 이런 거 협의할 때도 환경청에서 굉장히 늦게 대처해 주시잖아요, 점용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을 넘어서 연합의회가 갖고 있다면 연합의회로 오려는 자원도 좀 있을 것도 저희는 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처장님이 어쨌건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신규 사업 하는 거니까 저 또한 —질의는 드렸지만—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한 번 하고 추가적인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고요, 국제 협력 추진 역량 강화인데, 올해 간사이를 갔다 왔죠, 사전 답사도 하셨고.

간사이 이번에 1박 2일로 갔다 오셨나요, 사전 답사 할 때?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아니요, 간사이는 상반기에 저희 실무 과장하고 실무 담당 부서에서 4일 정도 다녀왔고요, 실무자들 만나는 거고, 이번 하반기에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연합장 일정과 여러 가지 사항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 **김광운 위원** 내년도 사업에 보면 일본 오사카가 1박 2일로 잡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영국 맨체스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맨체스터를 딱 집어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각종 토론회라든지 학회 같은 경우 박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충청광역연합이 간사이를 기본으로 해서 시작은 했지만— 영국의 맨체스터라든지 아니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같은 연합이 우리 연합과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일본만 가지고 일본과 교류를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광역연합 현황을 파악하고, 세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국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영국과 논의를 하면서 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다 보면 방문하려는 국가는 변경이 가능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선은 영국 쪽이 저희 쪽에 가장 분권과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영국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광운 위원** 그러면 처음에 박사님들이 모태가 영국이 더 낫다 이 얘기를 하셨으면 오사카 간사이를 갈 게 아니라 영국 먼저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그런데 같은 동양에 있다 보니까 일본은 저희랑 행정적으로 비슷한 —유사한— 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진행을 했었고, 또 간사이와 저희가 교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영국에 대한 부분은 논리는 각자 다른데 저희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독일 쪽도 저희랑 굉장히 밀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김광운 위원** 그러면 미국은 어디예요? 지역이 안 나타나 있고 ‘광역 도시권 의회’라고만 쓰여 있는데.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미국은 다시 확인하고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운 위원** 미국은 그냥 ‘광역권 의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미국권을 파악하고 계신 건지.

그래요. 어쨌든 충청광역연합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우리처럼 모델로 하고 있는 데를 당연히 가보면 게 맞고, 가본 거를 토대로 해서 광역이 발전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 아무리 동양권이라고 하고 우리 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폭넓게 봐서는 우리랑 거의 같은, 흡사한 데를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지론인 거죠, 저의 지론은.

제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지금 보면 작년 예산이 5500이었다가 9100, 한 3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사카는 줄이게 되는 거고, 또 맨체스터를 가다 보니까 5명이 넘 어가다 보면 4박 6일로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전이라도 어쨌든 저는 “일단 가까워서, 그리고 우리랑 문화가 비슷하고 우리랑 같다, 우리 모델이 간사이다” 이거를 떠나서 간사이를 모델로 했으면, 어쨌든 우리랑 비슷한 맨체스터가 더 낫다는 학자들의 얘기가 있다면 그렇게 먼저 추진하는 것도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김광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저희랑 완벽하게 맞다는 의미로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일본과는 올해부터 의원님들도 다녀오셨고, 저희 집행부도 다녀왔습니다.

일본과는 저희가 공식적인 교류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전세계 광역연합에 대해 저희가 같이 연대도 하고 광역연합들도 저희와 교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충북에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 외교 포럼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사이 연합장이 저희한테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있는 광역연합과 교류를 시작하는 게 첫 번째로 일본 간사이고, 그다음에 확대를 해서 영국도 하고 독일도 하고 미국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예, 어쨌든 이게 모델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광역권 모델을 우리가 갖고 와서 장점만 여기다 갖춘다고 하면 4개 시도 충청권이 혁혁하게 발전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태를 잘 삼아서 잘 추진하셔가지고 충청광역연합이 정말 수도권 과밀 해소를 막고 제2의 수도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첫 번째로 광역연합에서 해 줄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조성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충청권 UAM 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146페이지고요.

이것도 예산에 관련해서, 예산이 적은데 운영하시리라 힘들 거라 예상돼서 어렵지만 그래도 사업 내용 안에 담았으면 하는 내용이 UAM 특구가 저희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해당되나요? 그렇지요?

천안 쪽도 최근에 이슈는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대전이 원래 특구지요. 그렇지요, 처장님?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대전이 맞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래서 직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청 관련된 것도 하천 주변이나 특구 쪽만 규제를 완화받았던 것 같아요, 대전도요. 그렇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확인이…….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래서 강변 따라서 일부 이것도 규제를 해제해 주는 건데 굉장히 적은 양이라서 차라리 이런 기업 박람회 때 세미나도 갖고, 어차피 국토부도 오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적극 행정으로 규제 특구…… 저희가 드론 날리기 되게 힘들어요.

그 근처에 비행단 있는 것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부분도 있어서 하천에 대해서 일부 안전한 지역에서는 —4개 지역에 공평하게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런 기업 박람회 통해서 세미나를 가졌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특구 규제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천의 매립지를 통해 아라뱃길 전체로 다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드론 특구로 해서 드론을 쉽게 날릴 수 있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 대전이 거의 유일하고, 하천변이나 주변 일부만 받아서 사실상 드론 날리는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업 박람회 할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려면 그래도 세미나로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처장님, 가능하실까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UAM 박람회가 연합이 자체 개최하는 거는 아니고 고양에서 개최되는 거에 참여를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UAM 업무가 저희 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토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원래 기존에 담겨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저희가 어차피 UAM 국토부 내년도 공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담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여기 보니까 전략 사업 협의체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전략 사업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식 조정의 역할을 하든지 중기지 방재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길게 보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전략 사업 협의체 운영 신규.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 산출 근거 보니까 바이오·모빌리티 전문가 강의 수당이더라고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7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47페이지 중에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나와 있는 52페이지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방재정계획 52페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모빌리티랑 바이오 분야를 저희 광역연합의 전략 산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 그래서 여기 109페이지, 이 2개 같이 보실게요.

109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를 편성하는 사유가 결국은 바이오·모빌리티 협의체 운영, 그리고 클러스터 구축·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고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거를 장기적으로 중기재정에 넣어가면서 협의체를 했을 때 이만큼의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를 달리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예산이 작기는 하지만 작은 예산 속에서 충청광역이 가지고 있는 광역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협의체가 구성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산출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게 공식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산출 근거와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사업 협의체,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 대상이 되고 포괄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예, 사무관리비인데 바이오·모빌리티 전문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의 과제목과 산출 근거가 다르면 형식적인 예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왜 신규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산출 근거를 이렇게 잡았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저희들은 이 산출 근거와 세부 설명서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아주 적은 예산이 됐건 많은 예산이 됐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준을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리비만 하더라도. 그러면 강의 수당은 또 여기에 왜 잡혔는지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분에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댐에는 신규 사업으로 표기를 하고 예산을 별도로 설명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현미 위원** 아니, 산출 근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신규를 잡았다고 하면, 신규로 잡고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만 잡으신다고 하면 산출 근거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이 부분은 사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강사수당, 여러 가지로 사용하겠지만, 기본적인 편성 사유는 전략 사업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다 보니까 제목으로 '전략 사업 협의체 운영' 한 거랑 내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지금 보니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현미 위원** 하여간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고 잘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니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책자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연합이나 연합의회 그리고 의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지속적인 사업들이 광역연합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안에도 큰 부분으로 단락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연합장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실 테고요, 이거는 추후에, 다음 광역연합, 그러니까 선거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일 거 같아요.

광역 연합과 연합의회가 충청권을 목표로 잡고 가기 위해서는 연합장에 대해서도 임기를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5년 이상의 사업들로 운영 계획을 세우고자 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매년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연합과 의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전체 구성원들이 다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이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연합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다음 새로운 분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추진하려고 용역을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또 새로운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 늘 제자리에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는,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사업이 듭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단년 사업으로 끝날 사업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합이 출범을 하면서 20개 과제 사무에 대한 이관된 사무와 국가사무 관련된 범위 안에서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가 연말이 되면 직원들이 다 복귀하면서 교체가 되고 바뀌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질 것을 굉장히 걱정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 조직이고 정확히 인수인계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퍼포먼스가 필요할 때는 단순히 일회성 사업도 계상을 하지만 연합이 출범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가지고 목록 안에서 저희가 편성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 절대 단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저는 직원분들이 가는 것을 이 단계에서 우려하는 건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 계획을 봤을 때 단년으로 매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전체 사업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이라든지.

아주 작게는 2년씩은 계셔야 진행 과정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연계가 될 텐데, 진행이 계속 분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연합뿐만이 아니고 구성원 전체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사실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1년 동안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는 파견 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끝나고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합이 출범을 했고, 연합이 지자체로서 계속 살아남으려면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순히 기간의 문제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하여튼 4개 시도의 관심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으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담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계획서예요. 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확인하셨어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재 양성인데요, 채용 설명회 참여자 만족도에서 보시면 8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명이 선정된 거죠?

이게 ‘명’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치가 있는 거예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이거는 인원이 80명이 아니고 점수 표기입니다.

○ **김광운 위원** 그러면 80점이면.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저희가 대행사를 통해서 참여 인원을 조사한 결과 80점의 점수가 나왔다는 표기입니다.

○ **김광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목록이나 항목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보면 5점 만점에 기준 측정 후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환산하게 되어 있는데, 80점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죄송합니다. 평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광운 위원** 이거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지적하기 좀 그런데 오타도 하나 있어요, ‘만족도’인데 ‘만족조’로 했어요.

잘 살펴보세요.

○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산업문화과장 이철구입니다.

지금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조금 이따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 **김광운 위원**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성과계획서에 실으셨어요?

○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이거는 추후 제가…….

○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서면으로?

○ **김광운 위원** 예, 이거 끝나고 나중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거는 나중에 해 주세요,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예, 알겠습니다.

○ **김광운 위원** 나중에 추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광운 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예.

○ **김광운 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고요, 인도네시아 갔다 왔고요, 제가 듣기로 내년도 인도네시아로 다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인도네시아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 **김광운 위원** 아, 확정은 아니고?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하고 있고.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저희가 같은 국가를 여러 번 가야지 성과가 더 많이 나온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 **김광운 위원** 내년은 그러면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내년에는 대전시에서 담당을 하게…….

○ **김광운 위원** 대전에서 합니까?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 **김광운 위원** 예산 보니까 40개 업체로 해가지고 수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43개 업체가 갔었고, 그렇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거기서 얘기할 때 더 많은 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보니까. 50개 업체라든지 칠팔십 개 업체가 더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더군다나 예산 자체도, 어쨌든 올해 어떻게 보면 40개 업체가 가야 되는데 3개 업체가 왔는데도 똑같이 쓰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에 논의를 하실 때 위원들이 얘기한 거는 반영이 안 된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참여 업체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올해랑 동일한 예산이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올해랑 동일하게 편성을, 산출 근거로 제출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을수록 저희도

성과가 있다고 분명히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4개 시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대로 40개랑 50개 할 때 증가하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선정을 하고 선발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운 위원** 그런데 1개 업체당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생기면 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아무래도 예산의 범위가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계획하면서 혹시 상반기에 수요를 잡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광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이 많아지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은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틀을 다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업이 더 위주가 돼야 되는데, 신규 사업들은 늘어나고 예산은 그쪽에다 쓰다 보니까 계속 사업들의 예산 편성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올해와 동일 수준으로 된다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 사업에도 필요한 사업들은 증액을 한다든지 업체를 늘린다든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추경이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강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현미 위원** 예, 저는 하나만 말씀을…….

○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 보니까 측정 산식, 측정 방법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측정 산식이나 측정 방법 같은 경우는 산식 산정이나 목포값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과거 실적이 없기 때문에 '25년을 대비하셔야 되야 것들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근거 수치는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실적 근거 자료는 어떤 것들로 할 것인지 측정 산식, 측정 방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과 지표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각 시도마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과 지표라는 거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 예를 보실게요.

32페이지 보시면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세세부로 횡수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공동 개최 횡수라든지 아니면 인원수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 근거 자료는 만족도가 되겠지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계획서는 결국은 예산을 사용하는 기준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근거 자료라든지 측정 산식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위원님 지적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단순한 측정 산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좀 더 고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계획서나 지표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으면 횡수, 이거는 실적 근거 자료가 될 수 없거든요. 횡수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요, 공연을 했으면 공연 횡수가 아니고 만족도에 따라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규**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합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은 연합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은 연합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준비와 홍보 등으로 예산 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수현 연합사무처장님, 이재만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광운 김현미 이옥규 이한영 조성태

○**청가 위원(3인)**

구형서 김응규 안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희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의회〉

처 장 이재만

사 무 처 장 김미희

〈충청광역연합〉

사 무 처 장 이수현

초 광 역 자 치 과 장 박승일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